

2016. 5. 26.(목) 조간 언론보도 스크랩



2016년 05월 25일 (수)
사회

경기관광공사, 동남아 3국 대상 '태후' 관광마케팅 추진

태국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3국을 대상으로 한류붐의 주역인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등을 앞세운 경기지역 관광마케팅이 추진된다.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동남아 3개국(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을 순회하며 일반인과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시장별 맞춤형 경기 관광 설명회를 한국관광공사 동남아 지사와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관광공사는 28일 동남아 최대 시장인 태국 수도 방콕(난타 전용극장)에서 열리는 개별 관광객 설명회 'Love Korea' 행사에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참가해 뷔띠프랑스와 수원 화성 등을 집중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태국인 한국여행 작가의 한국 관광 특강과 한국 음식 체험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증가하는 개별 관광객들의 경기도에 대한 관심을 더욱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번 태국 행사에는 애초 150명 초청을 목표로 했으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적극적 홍보로 약 1,000 명이 신청해 행사장을 옮겨 확대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관광공사는 제주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오는 30일 필리핀 시내(홀리데이 인 호텔)에서 현지 주력 여행사 관계자 30명을 초청해 동계 관광 설명회를 추진한다.

다음달 1일과 2일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코리아플라자)와 페낭(G호텔)에서 현지 여행사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태양의 후예' 콘텐츠를 앞세워 말레이시아인 선호도가 높은 임진각 일원 관광지와 '별그대'로 유명세를 탄 한국의 치킨을 맛보고 직접 튀겨볼 수 있는 이천 BBQ 치킨대학 등을 소개해 학생 단체나 MICE(마이스) 관광객들의 수요를 공략할 계획이다.

경기관광공사 홍승표 사장은 "동남아 시장은 다양한 국가와 민족에 맞춘 차별화된 관광지를 개발해야 한다"며 "또한 최근 동남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태양의 후예 촬영지도 함께 홍보해 제2의 한류 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4.4 X 14.4 cm

‘태후’ 활용 동남아에 제2의 한류붐 조성

경기관광공사 3개국서 마케팅

경기관광공사가 한국관광공사 등과 손잡고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3개국에서 관광 마케팅을 펼친다.

관광공사는 28일 태국 방콕에서 개별 관광객 설명회 ‘Love Korea’를 열고 경기도의 다양한 관광상품을 소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현지 유명 가수이자 TV 여행프로그램(Make Awake)의 호스트 노토(Notto)가 가평 뿌띠프랑스, 수원 화성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30일에는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서 현지 유명 여행사 관계자 30명을 초청, 한국 겨울관광 설명회를 한다. 성탄절 연휴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필리핀 관광객들을 겨냥해 도내 스키장을 알린다.

다음달 1~2일에는 말레이시아 팔라렘푸르와 페낭에서 현지 여행사 대상 관광 설명회를 진행한다. 공사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내세워 말레이시아인들의 선호도가 낮은 임진각 일대 관광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유명해진 치킨 요리를 맛보고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이전 BBQ치킨대학 등도 소개할 예정이다.

유명식 기자
11.4 X 8.6 cm

‘별그대·태후’ 앞세우고 동남아 관광마케팅 ‘시동’

경기관광공, 제2 한류붐 조성

경기관광공사가 한국관광공사 등과 손잡고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3개국을 대상으로 관광 마케팅에 나선다.

공사는 이달 28일 동남아 최대 관광시장인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개별관광객 설명회 ‘Love Korea’에 참석, 경기도의 다양한 관광상품을 소개한다.

이 자리에서 2013년 경기도를 방문한 현지 유명 가수이자 TV 여행프로그램(Make Awake)의 호스트 노토(Notto)를 초청, 당시 인상 깊었던 뿌띠프랑스,

수원 화성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태국인 한국여행 작가의 한국 관광 특강, 한국 음식 체험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30일에는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서 현지 유명 여행사 관계자 30명을 초청, 한국 겨울관광 설명회를 한다.

성탄절 연휴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필리핀 관광객들을 겨냥해 도내 스키장 중심의 관광상품을 소개한다.

다음 달 1~2일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페낭에서 현지 여행사 대상 관광 설명회를 한다.

공사는 이 설명회에서 최근 방영된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내세워 말레이시아인들의 선호도가 낮은 임진각 일대 관광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해외에서 유명해진 한국의 치킨 요리를 맛보고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이전 ‘치킨대학’ 등도 소개할 예정이다.

경기관광공사 홍보표 사장은 “동남아 시장은 다양한 국가와 민족에 맞춰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며 “태양의 후예 촬영지 등을 이용해 동남아에서 제2의 한류 붐을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복진기자
17.4 X 8.8 cm



“DMZ 대성동 마을 응원합니다” 분단의 역사에 선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앞두고 25일 판문점 일원을 시찰하고 DMZ내 유일한 민간 마을인 대성동 마을을 현장 방문했다. 사진=경기도청

17.4 X 12.8 cm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대성동 마을을 찾아 응원의 글을 남기고 있다.

“DMZ 숨겨진 가치 발굴할 것”

**양복완 도 행정2부지사
대성동 마을 등 현장방문**

경기도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양복완 도 행정2부지사가 판문점과 대성동 마을 등 DMZ 일원을 방문했다고 25일 밝혔다.

판문점은 휴전협정,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7·4공동성명, 남북 총리회담 실무회담 등 갈등과 화해의 역사가 담긴 곳으로 임진각, 도라전망대 등 각종 명소를 중심

으로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

양 부지사는 “매년 60만 명의 외국인이 DMZ 일원을 찾고 있는 것은 분단의 상흔, 통일의 희망, 역사와 자연을 모두 아우르는 곳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DMZ의 숨겨진 가치를 발굴하고, 효과적으로 보전해 통일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각종 정책과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양 부지사는 DMZ 내 위치한 유일한 민간마을인 대성동 마을을 방문했다. 이곳은 현재 49가

구 총 207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노후화가 심했던 마을을 재생하고자 민관이 함께 주택보수, 기반시설 정비 등을 실시하는 ‘대성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양 부지사는 “대성동 마을은 한국의 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긴 곳이자 평화와 남북 소통을 상징하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보물”이라며 “앞으로 대성동 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DMZ 일원의 조화로운 보전과 개발을 통해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경기도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14.9 X 19.9 cm



25일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판문점·DMZ 내 유일한 민간 마을 대성동 마을을 찾아 점검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양복완 부지사가 판문점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양복완 도 행정 2부지사
판문점·DMZ 마을 방문
“다양한 정책·사업 발굴을”**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5일 오전 판문점을 시찰하고 DMZ 내 유일한 민간 마을인 대성동 마을을 찾았다.

양복완 부지사는 “매년 60만명 내외의 외국인이 DMZ 일원을 찾아보고 분단의 상흔, 통일의 희망, 역사와 자연을 모두 아우르는 곳이라는 점에서 매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부지사는 “앞으로 DMZ의 숨겨진 가치들을 발굴하고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통일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각종 정책과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강성준 기자 sikang15@incheonilbo.com

23.4 X 11.0 cm